

니가가라 라오스

딘운파라가 전하고픈 이야기

네 번째 이야기
1 2 월 호

이 야 기
순 야 서

첫 번째 이야기

딘라파의 7일 천하
7일 간의 휴양? 대피?
과연 7일 동안 어떤 일이.

두 번째 이야기

딘라의 나케 살이

세 번째 이야기

파의 나몬노아 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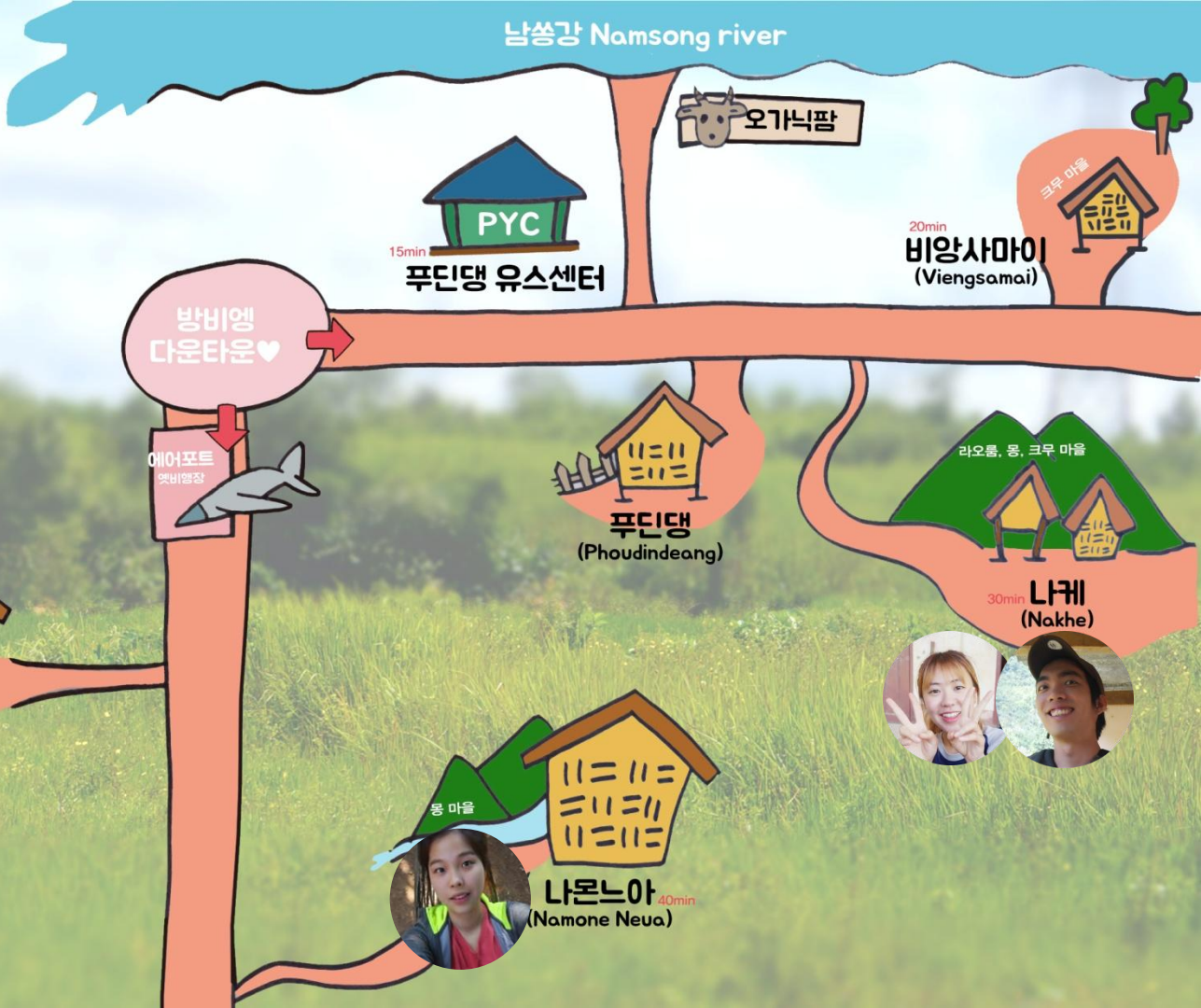
네 번째 이야기

운의 풍송 살이

개 인 에 세 이

12월 한 달 동안 우리는

방비엠 마을지도



1탄

딘라파의 7일천하

7일 간의 휴양? 대피?









딘라파의 7일 천하

갑자기 활동지를 옮기게 된 이유!

올해 건국 40주년을 맞는 라오스의 Lao National day를 기점으로 라오스의 경계상태가 좋지 않아, PYC 직원들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나몬노아 마을에 살고 있는 파(예찬)와 나케마을에 살고 있는 딘(태우)과 라(재원)가 갑작스럽게 활동지를 임시로 옮기게 되었다. 안전한 훈송마을에 살고있는 '운(룡)'은 활동지를 옮기지 않았다.

라온아띠의 안전을 위해, PYC 직원들이 직접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해서, PYC 직원들의 가족들과 함께 1주일을 지내게 되었다.

12/6 (일)	12/7 (월)	12/8 (화)	12/9 (수)	12/10 (목)	12/11 (금)	12/12 (토)
  딘,라 푸딘댕 살이				   파 합류!! 딘라파, 푸딘댕 살이		
	 파 비앙사마이 살이					모두 함께 나뻐져 축제!

7. 파의 비암사마이 살이

7-1. 활동지소개

7-2. 가족소개



7. 비앙사마이는?

7-1. 활동지 소개



비앙사마이 유스센터 Viengsamai Youth center

마을소개 라오룸 & 크무족이 함께 살아가는 마을
3개의 도로와 남송강
푸딘댕의 메인도로 옆에 위치
새로운 호텔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이주

센터활동 월~목 5:00~6:00 영어수업(단어 중심)
금~토 5:00~6:00 댄스수업(크무 전통 춤)

스텝소개 아사(18) : 학교를 다니며 스텝으로 일한다.

라온아띠 활동내용 한국관광객이 늘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아 머무는 4일 동안 ‘한국어수업’을 진행했다.

7. 비양사마이는?

7-2. 가족소개



- ✓ 가족민족 : 크무족
- ✓ 가족직업 : 농부 (나케마을에 논을 가지고 있음)

- ✓ 할머니 : 하루종일 집에 있는 날 불쌍히 보신 할머니
- ✓ 아빠 : 큰 키를 가지시고 조용한 성격의 아빠
- ✓ 엄마 : 아빠와 다르게 활발한 성격을 가진 엄마
- ✓ 께오 (22) : PYC 직원이자 동생이 아닌 친구
- ✓ 깃 (20) : 이정을 닮은 축구 좋아하는 남동생
- ✓ 아사 (18) : 비양사마이 유스센터의 직원인 여동생
- ✓ 마니 (16) : 배탈이난 나에게 약을 사다준 여동생
- ✓ 콩 (15) : 주말에 카약킹 아르바이트를 나가는 남동생



ㄴ. 딘라(파)의 푸딘땡 살이

- ㄴ-1. 푸딘땡은?
- ㄴ-2. 센터 활동
- ㄴ-3. 심



ㄴ. 푸딘댕 살이

ㄴ-1. 푸딘댕은?



푸딘댕은?

딘과 라는 푸딘댕 유스센터 (PYC)가 위치한 푸딘댕 마을 중에서도 크 무족이 사는 마을 (Kmu part)에서 임시로 일주일간 홈스테이 했다.

우리가 살던 나케가 시골 냄새가 난다면 상대적으로 도시 냄새가 나는!? 곳이다.

메인 도로 바로 옆에 위치하기도 하고, 작은 마을인데도 샵이 엄청나게 많다!! 가구가 이렇게 적은데 저 많은 샵들이 운영될 수 있단 말이야? 할 정도였다.

역시 도시..?답게 엄청난 과자 종류와 나케에서는 볼 수 없던 남딤과 찹쌀떡을 파는 샵까지 마을 안에 있어 입이 너무 행복했다.

L. 푸딘댕 살이

L-1. 푸딘댕은?

푸딘댕은?

딘은 PYC의 직원 캄밍의 집에서
라는 캄손의 친척 집에서 홈스테이 했다.

알고보니 푸딘댕 크무 마을은 캄손과 캄밍의 친척이 모두 함께 모여
사는 마을이었다. (캄손과 캄밍도 친척이다.)

집 근처 이웃이 모두 가족이다 보니 외출할 때도 별 걱정없이 집 문을
활짝 열어둔다. 한국에서 살던 우리 아파트를 보여주었더니 놀라며 저
많은 집들이 다 친척 집이냐고 물어봤다.



캄손 집



캄밍 집



셋째 딸

둘째 아들

첫째 아들

걸어서 1분 거리



푸딘댕 센터

- ✓운영: 월~금 ENGLISH CLASS / 토~일 DANCE CLASS
- ✓LEVEL1: 4~5시, 핼 (17) 담당
- ✓LEVEL2: 5~6시, 끼양 (17) 담당



학생들도 선생님도 공부를 한다는 것보다 함께 영어 놀이를 하는 것 같았어.
이 친구들이 영어 공부를 대하는 태도는 나에게 굉장히 큰 배울 점이었던 것 같아.

L. 푸딩땡 살이

L-3. 씹 / 특식!!



참새 고기는 굉장히 귀한 음식인데, 파(예찬)가 집에 온 날 엄마가 인 참새를 먹게 해주었어!!



돼지 간 볶음! 이거 말고도 고기를 손에 하나씩 또 쥐어주셔서 맛있게 먹었는데 '냐르 페르' 가 뭐냐고 물어보니 개구리더라. 근데 진짜 맛있었어.



그린 망고야. 푸딩땡은 시장이 가까워서 망고를 사먹을 수 있었어!



이게 왜 특식이야? 할 수 있지만 내가 이 전날 당근일 줄 알고 고추를 먹었다가 혼났거든. 그걸 기억하고 당근 볶음을 해줬어.

ㄴ. 푸딩땡 살이

ㄴ-3. 씬 / 요리 만들어 먹기



재료는 마늘, 토마토, 계란, 누들.



이제 화로에 불 정도는 스스로 피울 수 있어.



재료만 보면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인데, 맛없었어..

L. 푸딩댄 살이

L-3. 씬 / 나눔, 나눔 나눔!!



서로 떨어져 다른 마을에서 살던 우리는 드디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밀린 이야기들을 나누고 나누고 나누었어. 눈을 뜨고 쉬다가 서로의 집에 놀러 가서 같이 음식도 만들어먹고 이야기하고 장난치고 정말 행복했어... ★



파와 라집에 놀러온 딘



저녁이면 셋이 함께 모여 이야기 했다. 재밌던 사건, 힘든 점 이것 저것!



딘집에 놀러간 파와 라



파와 라를 보살펴주었던 핏과 함께.

ㄷ. 나베찌

(Hmong New year's festival)



㉔. 나베쩌 (몽 신년 축제)

나

(눠- 먹는다)

베쩌

(베짜오- 30번)

즉! 30번 먹는다는 의미의 몽족의 새해 축
제인 나베짜에 다녀왔다.

방비엥의 몽사람들은 모두 그 해의 축제 주최 마을로 모여 함께 축제를 즐긴다. 이번 년도는 '파타오'라는 마을에서 나베쩌가 열렸다. 공식적인 축제 기간은 보통 4~5일 정도이지만, 각 마을에서는 일주일 정도 일을 하지 않고 전통 옷을 입고 축제를 즐긴다. (라온아띠의 수업 진행에 차질이... 다들 수업을 안와..)



▶ 마을 입구에는 엄청난~ 수의오토바이가 주차되어있었어. 그만큼 몽 족에게는 매우 매우 중요한 축제가 바로 나베쩌!



▶ 축제가 열린 '파타오' 마을. 축제가 열리는 곳으로 걸어 걸어 이동 중.



▶ 포동포동해진 Faa와 Laa..

㉔. 나뻬저 (몽 신년 축제)

나뻬저 의 볼거리?

젊은 남녀들이 몽족의 전통 옷을 입은 모습을 보는 것 자체로도 큰 볼거리인 나뻬저! 몽족의 전통 옷은 색도 모양도 굉장히 화려하다.



ㄷ. 나뻬쩌 (몽 신년 축제)

나뻬쩌 의 유래는?

예부터 고산지대에 살던 몽족은 결혼할 상대를 외지에서 찾는 것이 어려웠다. 그래서 일 년에 한 번 씩 개최 마을에서 몽족 젊은이들의 짝찾기*^^* 프로젝트 겸 새해 축제가 열리는 것이다.



▶ 이렇게 남녀가 일렬로 줄을 서서 서로에게 공을 던지며 눈빛을 주고받아. 어디 한국에는 없나..?

ㄷ. 나베찌 (몽 신년 축제)



공 던지기, 풍선 터뜨리기 게임



Laci: 캔 깡통 열개를 공으로 던져서 모두 쓰러뜨리면 상품을 주는 거야. 나는 그냥 욕심 없이 한 개라도 넘어뜨리고 싶었거든.. 근데 내가 너무 못해서 보 다 못한 아주머니가 그냥 껌을 하나씩 줘주셨어.

먹거리 장터



Laci: 오랜 만에 먹고 싶은 음식들을 보니까 너무나너무 신났어. 간만에 비싼 큰 아이스크림도 사먹고 남면(버블티 비슷한 음료수)도 사먹고 단걸로 배를 채웠어. 태우오빠가 나한테 너 진짜 많이 먹는다고 하면서 아침, 점심, 저녁 먹을 양을 그냥 여기서 다 먹고 있는거냐고 했어.



음마칼로우 (주사위 던지기 게임)



Din: 나무 판 상단에 있는 큰 주사위를 떨어뜨려 그림에 맞춰서 돈을 따가는 귀여운 놀이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리고 연령 상관없이 많은 몽족들이 즐기는 게임이더라고??



라오 국수인 카오 삐약

Din: 라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카오삐약(라오식 국수) 팍시를 빼면 한국사람들이 정말 맛 있게 먹을 수 있다고!! 라오스하면 땀막흠 매콤하면서 짭자름한 파파야 샐러드!! 라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서민 음식이라고!!

드. 나뻬쨌 (넡 신년 축제)

나뻬쨌를 다녀온 우리의 생각



딘 (태우)

Din: 첫 두 달간 생활했던 나뻬냐 생활에서 넡족 사람들을 처음 경험했고 가까워 졌다고 할 수 있었어. 그래서 인지 더 친근한 넡족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나뻬쨌 축제였던 것 같아. 조금 아쉬운 건 나뻬냐에 나를 기다리는? 꾸완과 바티야... 보고싶네 그려. - π 내년 신년에 꼭 찾아 가겠습니다. !! 보고싶은 나뻬냐 친구들이여



운 (룽)

Woon: 내가 부산 백스코를 방문한 기분이었다. 넡족 의상이 화려한건 익히 알고 있었으나 여러 마을의 젊음들이 현대적인 감성을 살려서 만든 자신들만의 전통의상은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마치 코스프레를 위해 만화 주인공들의 화려한 의상을 벤치마킹한 느낌이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에 참여했기에 아쉬웠다.



파 (예찬)

Faa: 아직까지 젊은 사람들이 전통옷을 좋아하는 것을 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어. 이날을 위해 편 내 내 바느질을 해서 옷을 만드는 정성을 보이거든.. 나는 한복을 입은 기억이 고등학교 1학년 예절 수업이었어. 또한 복을 만들 수도 가지고 있지도 않아. 재원에게 한국에 돌아가 한복 입는 날을 정해서 한복의 날을 정해 축제를 열자며 이야기 나뻬어. 한국인과 보내는 나뻬쨌와 현지인과 보내는 나뻬쨌는 확실히 달랐어. 둘다 재미있었지ㅎ



라 (재원)

Laa: 나뻬쨌. 우리나라는 없나..? 나도 짝 찾아주세요...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코스프레 페스티벌에 온 것 같았어. 우리나라도 한복을 입는 명절이 있었지만 이제 한복을 입고 세배를 드리던 그 전통이 퇴색됐잖아. 넡사람들은 이 축제에 입고 갈 전통 옷을 마련하기 위해 세달 전부터 돈을 모으고 자수를 뜨면서 준비해. 그러면서 본인의 정체성과 소속감,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 것 같아. 아쉽다, 한국!

딘라의 나케살이

니가가라 라오스 2탄



2탄

딘라의 나케살이 목차

ㄱ 오스오스라오스

-딘의 가족소개
-바나나는 우리 식탁에 어떻게 오나요?

ㄴ 나케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ㄷ 우리가 관찰한 나케

ㄹ 활동 보고

7. 오스오스 라오스

7-1. 팀의 가족 소개

7-2. 바나나 농장 딸 라가 소개하는 바나나 농장!



7. 오스오스 라오스

딘의 가족 소개



DIN의 소박하고 따뜻한 가족들과 이웃들을 소개합니다.

엄마, 아빠, 첫째 딸, 바이, 마이, 짝, 찜, 찹, 라 그리고 큰아들 아이
탐디와 둘째 아들 DIN

7. 오스오스 라오스

단의 가족 소개



이웃들에게 정 많고 착한 걸로 소문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오죽하면 나케 마을의 사랑방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무를 박고 라오름을 만드시고 딸 여섯에 아들 하나를 업어 키우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항상 챙겨주시려 하는 두 부모님 때문에 진짜 라오에 어머니 아버지가 생긴 듯합니다. 존경하고 고맙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합니다!!

또 우리 팀매 중 6명의 여자와 홀로 살아남고 있는 청일점 찜! 그리고 나의 룸메!

사내 아이가 하나 뿐이라 엄청 사랑 받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의젓한 면이 보이고 어른스러워 보이는 찜! 머리는 다시 잘라 달라고 하지 마렴.



7. 오스오스 라오스

딘의 가족 소개



그리고 우리 여동생 바이(22), 짝(19), 쨌(17), 라(14) 딸 부자인 집에서 사랑받는 DIN의 나케 가족 들이었습니다.

7. 오소오스 라오스

바나나 농장 딸, 라가 소개하는 바나나 는 어떻게 우리 식탁에 오나요?



우리 가족은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바나나 농장의 일부를 책임지고 농사 짓고 있어. 나케에 도착한 10월부터 틈틈히 주말에 바나나 농장을 가서 함께 일했는데, 지 지난 주 12월 둘째 주에 드디어 바나나를 수확하기 시작했어. 한국에서는 바나나를 사먹기만 했지 그 바나나가 어떻게 내 식탁에 오게 되는지는 몰랐거든. 그런데 직접 바나나를 농사 짓고 수확하고 박스 포장하는 것 까지 보니까 감회가 새롭더라고. 내가 먹는 음식 하나하나가 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 온다는 걸 알기는 했지만 내가 그 사람 중 하나가 되어 보니까 항상 내가 먹는 음식들에 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진심으로 깨닫게 되더라.

그리고 내가 언제 바나나 농장 딸이 돼보겠어 ㅎㅎ 자, 우리집 바나나 농장의 바나나 수확 과정을 보여줄게!



▶ 아침 7시, 가족과 함께 트럭을 타고 바나나 농장으로 이동하는 중이야. 왼쪽은 남동생 오른쪽은 첫째 오빠 부인.



▶ 바나나 농장!



▶ 8시간 일한 나의 발의 최후..

7. 오스오스 라오스



바나나

바나나 놀잡 딸, 라가 소개하는
는 어떻게 우리 식탁에 오나요?



STEP1



바나나 열매는 이렇게 생겼어! 안에 바나나가 웅크리고 있어. 껍질이 벗겨지면 바나나가 펼쳐지는 거야. 가끔 집에서 이 열매를 삶아 먹기도 해.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둥그런 모양인데 사실 바나나는 처음에 각진 모양이야. 신기하지? 난 처음에 되게 신기했는데 ㅎ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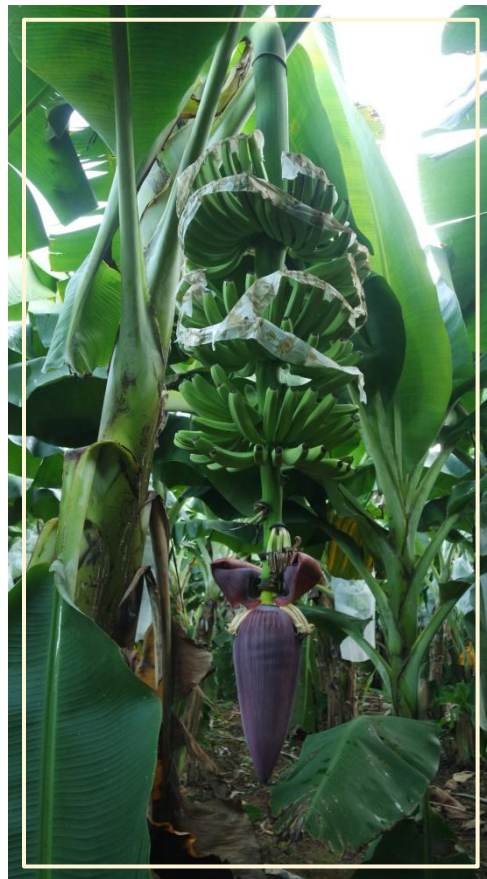
STEP2



바나나가 어느 정도 익으면



바나나 송이 송이를 비닐로 분리해.



7. 오스오스 라오스



바나나 농장 탐, 라가 소개하는

바나나

는 어떻게 우리 식탁에 오나요?



STEP3



그런 다음 바나나 한 줄기에 한 줄기에 이렇게 비닐을 씌워, 바나나가 상처 나면 안되니까!



STEP4



바나나 나무에 묶여 있는 끈 보이지? 바나나 나무가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게 고정하는 거야. 기울어진 나무에 끈을 묶고 반대 방향으로 나무를 당겨서 고정하는 작업을 했어. 2인 1조로 작업해서 난 둘째 남동생이랑 짝지어 일했어. 짐작해보니까 이 날 내가 세운 바나나 나무가 250그루 정도더라. 진짜 힘들어 ㅎㅎㅎ

7. 오스오스 라오스



바나나

바나나 농장 딸, 라가 소개하는
는 어떻게 우리 식탁에 오나요?

STEP5



바나나가 다 커서 드디어 수확하는 날! 바나나 송이가 열린 가지를 자르면 2인 1조로 어깨에 지고 옮겨와, 이 날은 마을 주민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러 농장에 모였어. 한 번 옮기는 데 1인당 2,000킵 (약 250원)이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은 빨리 움직이면 되고, 힘들다 싶으면 언제든 집에 가도 돼. 되게 합리적이지 않아?



바나나 세척대

박스 포장대

바나나를 중국으로 싣고갈 트럭

7. 오스오스 라오스



바나나

바나나 농장 탐, 라가 소개하는
는 어떻게 우리 식탁에 오나요?



STEP6



실고 온 바나나를 주렁 주렁 걸고 차례 차례 세척대로 보내



STEP7



세척해서, 박스 포장하고, 차에 실으면! 끝!



한국에서 라오스산 바나나를 만나면 꼭 꼭 아껴먹을꺼야..! 바나나 맛있게 드세요~~

나. 나케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ㄴ. 나케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딘의 친구 소개



딘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깐 (12)

- ✓나케의 절대미인(역시 크무?).
- ✓항상 공부하러 올 때 예쁜 옷을 골라 입고 오는 센스.
- ✓수줍음이 많아 보이지만 항상 호기심 많은 소녀
- ✓몸은 가려리지만 힘은 나만큼 썸.
- ✓옷을 때 항상 입을 가리는데 더 예뻐
- ✓예쁘게 커다오 5년 뒤에 오빠가 데리러 올게...



바이 (12)

- ✓웃음이 정말 예쁜 바이!
- ✓태어나서부터 들리지 않아 말하지도 못하지만 항상 웃고 긍정적인 바이!
- ✓항상 영어 클래스에 와서 웃고 있는 바이!!
-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더 좋은 방향으로 키워 낼지?? 털보선생님과 딘, 라의 과제!!



짠 (14)

- ✓우리 집 남동생의 친구이자 제일 많이 친해진 짠!
- ✓10살 넘게 차이 나지만 나를 잘 챙겨 준다고.
- ✓밤마다 우리 집에 와서 보드게임하고 영화보고 이야기하는 친구.
- ✓이제는 사위까지 같이 한다는 소문 이..
- ✓역시나 저녁 영어 수업에도 절대 빠지지 않는 친구.



케 (5)

- ✓우리 집 장난꾸러기.
- ✓우리 집 셋째 딸(바이 22)의 아들.
- ✓학교에서는 털보선생님 눈치보고 집에서 눈치 볼 사람이 없으니 엄청난 장난꾸러기로 변신!
- ✓밤마다 '아이 딘 병난 카툰'을 외침.
- ✓'보 빠이' 학교를 맨날 가지 않으려고 해.
- ✓입이 맨날 튀어나와 있음.

ㄴ. 나케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딘의 친구 소개



딘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바이 (22)

- ✓ 케(5)의 엄마.
- ✓ 하지만 나를 '아이 딘(딘 오빠)' 라고 부른다.
- ✓ 동생인데 누나 같은 친구.
- ✓ 바이가 없으면 집에서 밥도 못먹는 딘.
- ✓ 케 때문에 항상 힘든 바이.
- ✓ 우리집 셋째 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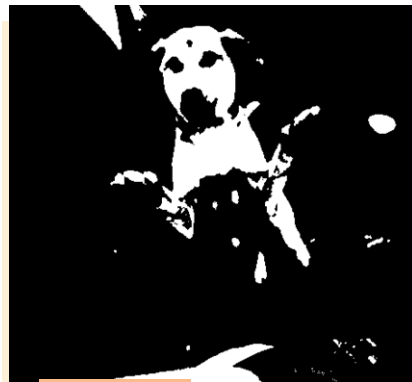
미영 (18)

- ✓ 미래의 나케 유스센터 스텝!
- ✓ 영어를 정말 잘한다.
- ✓ 너무 성실한 미영.
- ✓ 나케 첫 방문때 부터 친해진 미영.
- ✓ 항상 우리가 자리를 비우면 영어 클래스를 열어주는 친구.
- ✓ 남들에게 배려하는 마음이 이쁜 청년!!



르왕 (4months)

- ✓ 딘's house의 애완동물 르왕!
- ✓ 너무 출썩 대지만 너무 귀여운 우리 르왕.
- ✓ 맨날 밥 먹을 때 마다 우리 가족 주변을 맴돈다.
- ✓ 2015.12.19 르왕이 이상하다.
- ✓ 2015.12.20 르왕이 세상을 떠났다.
- ✓ 미안해 르왕. 더 잘해주지 못해서.



르왕

- ✓ 4개월이라는 짧은 삶을 끝으로 세상을 떠난 르왕..
- ✓ 그를 떠나 보냅니다.

ㄴ. 나케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라의 친구 소개



라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종 (11)

- ✓ 우리 앞 집 쪼꼬맹이 종.
- ✓ 알고보니 우리 집 오빠 부인의 남동생이었다.
- ✓ 날 엄청 챙겨준다!! 내가 말을 못알아 들어도 10번이고 더 말해준다.
- ✓ 근데 장난이 심해져서 저번엔 빨래하는 날 화장실에 가뒀다...
- ✓ 내 이어폰을 가지고 도망쳤다...
- ✓ 손 마사지인지 때리는 건지 모르겠다. 너무 아프다ㅠㅠ 힘이 너무 세다.



누 (14)

- ✓ 우리집 둘째 남동생.
- ✓ 눈도 못마주쳤었는데 이제 친해졌다.
- ✓ 나를 정말 좋아한다. (내 생각)
- ✓ 키도 크고 얼굴도 귀엽고 ㅋㅋ 일도 잘한다!!!!
- ✓ 내가 마을에 없는 동안 내 방문 앞에 한국어로 '라'라고 적어놨다. 나를 그리워 했나 보다. (내 생각)
- ✓ 역시 요즘 장난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아주 가끔 진짜 짜증이 난다.



팬송 (30)

- ✓ 우리 앞 집사는 청년 회장.
- ✓ 항상 막내 딸을 액세서리처럼 팔에 얹어서 데리고 우리 집에 놀러 온다.
- ✓ 몽족인데 라오름 집이 좋다고 라오 전통 집을 짓고 산다.
- ✓ 딸은 엄마를 닮았으면 좋았을 텐데..
- ✓ 아들 둘이 있는데 진짜 귀엽다. 내가 마음 속으로 제일 귀여워한다.



드막(6)

- ✓ 요즘 나를 자꾸 끌고 다닌다.
- ✓ 힘이 나보다 세서 끌려 다닌다.
- ✓ 저 멀리서도 나를 보면 달려와 어딘가를 데려간다.
- ✓ 저번에는 다같이 술을 마시고 있는 집에 데려가서 맥주 두 잔을 얻어마셨다.
- ✓ '짜오 응암 응암' 예쁘다고 자꾸 말해준다. 고마워 정말ㅠㅠ..

나. 나케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라의 친구 소개



라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매일 전화하고 받기 전에 끊어버리는 영 (15)



곧 나케 유스센터 보스가 될 이영 (17)



내가 없던 일주일 사이 섹터이 되어버린 이름 없는 멍멍이 (0)



술 마신 날, 켄네집(=딘 집)에서 켄과 함께 잤다.



팬송 아들 까오. 달려와 안길 때 행복하다! (3)



나케에서 (내 순위로) 제일 잘생긴 비영 (16)



웃는 모습이 정말 천사같은 씨암 (6)



까올리(한국인)하며 따라오는 다오끼야 (3)

ㄷ. 우리가 관찰한 나케



ㄷ. 우리가 관찰한 나케

딘라가 바라본 나케 7 to 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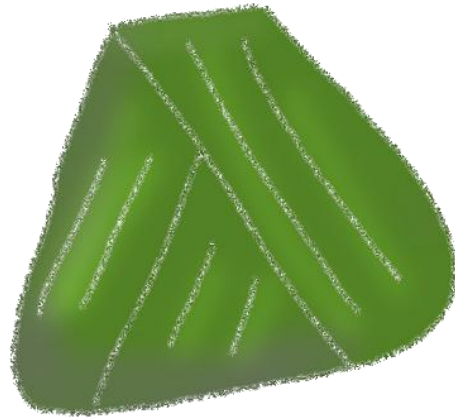


ㄱ. 나베찌 (몽 새해)에는 카오땀을 먹는다

라의 생각 : 카오-쌀, 땀-치다! 카오땀은 쌀을 쳐서 만든 음식인데, 우리나라 가래떡이랑 맛이 똑같애. 화로에 구워먹기도 하고 기름에 튀겨 먹기도 해. 지인짜 맛있어ㅠㅠ. 나베찌 기간에만 먹을 수 있대. 한동안 밥을 먹고 엄마가 항상 구워주셨어. 아침에 내 방문을 두들기고 옆집 꼬마가 카오땀을 주고 가기도 했어ㅎㅎ



▶ 나베찌 기간에 전통 옷을 입은 옆집 꼬마, 마이 무아. 학교 가기 전 아침에 내 방문을 두들기고 카오땀을 주고 갔다. 너무 너무 이쁘대!



▶ 이렇게 바나나 잎에 싸여있는데 모양은 꼭 삼각김밥 같애.

ㄷ. 우리가 관찰한 나케

딘라가 바라본 나케 7 to ㅎ



ㄴ. 몽족 중에는 기독교인이 많다.

라의 생각 : 라오스의 공식 종교는 불교이지만 몽족 중에는 기독교 인이 많다. 아침에 노래 소리가 크게 들리길래 나갔더니 앞 집에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 처음에는 아기 돌잔치인가? 했는데 노랫말에서 '예수, 예수' 하는 게 들리더라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 같았는데 목사님 같은 분이 설교도 하시고, 앰프를 틀어놓고 통기타로 크게 노래로 함께 부르더라. 나이반인 우리 아빠도 맨 앞자리에 앉아 함께 하셨어.



▶ 집 밑에 파란 천막에서 예배를 드렸어.
예배가 끝난 후 사진이야.

ㄷ. 우리가 관찰한 나케

딘라가 바라본 나케 7 to ㅎ



ㄷ. 3민족이 같이 사는 나케마을 그 중 크무족이 가장 이쁘다?

딘의 생각 : 라오족, 몽족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이쁘지만 그 중 가장 이쁜 눈을 가지고 있는 크무족 여자아이들 볼 수록 빠져들 것 같아.



ㄷ. 우리가 관찰한 나케

딘라가 바라본 나케 7 to ㅎ



ㄹ. 라오도 장례 때 3일장을 치른다.

라의 생각: 크무 마을 할아버지 한 분이 돌아가셨어. 돌아가신 날 우리 아빠 (나이반=촌장) 트럭으로 관을 싣고 오는 걸 봤거든. 관을 집 안으로 들고 들어갔어. 그리고 앞 마당에서는 3일장이 치루어졌어. 장례식에서 우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 다같이 노래를 듣고 밥을 먹고 TV를 보며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비는 것 같았어.



▶ 이 앞마당에서 3일장이 치뤄졌어. 큰 천막, 테이블이 펼쳐졌고 집 안의 tv까지 밖으로 내오셨어.

ㄷ. 우리가 관찰한 나케

딘라가 바라본 나케 7 to ㅎ



ㄱ. 센터를 주민들이 함께 짓는다.

라의 생각 : 보통 건물을 지을 때는 인부들을 고용하잖아. 근데 나케 센터는 마을 주민들이 한데 모여 함께 지어가고 있어. 물론 속도가 더디긴해. 그렇지만 나이 드신 할아버지부터 중학생들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 센터를 짓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참 정겨워. 건축 현장을 놀러가보니 14살인 내 남동생이 지붕 위에 올라가 어르신들의 지휘 하에 지붕을 짓고 있었어.



▶ 지붕에 올라가있는 내 남동생 누!

ㄷ. 우리가 관찰한 나케

딘라가 바라본 나케 7 to ㅎ



ㅂ. 아침과 밤이 너무 춥다.

라의 생각: 한동안 정말 추웠어. 잘 때 윗도리를 세 개 바지를 두 개 끼입고 자. 이불도 두꺼운 걸로 두 개를 덮거든? 근데도 너무 추워. 차가운 물 밖에 안 나와서 저녁에 샤워하는 게 정말 힘들어. 요즘은 커피포트로 물을 데워서 미지근한 물로 씻는 수고를 하고 있어ㅎㅎ



▶ 내 이불 2개와 수면 바지

ㄷ. 우리가 관찰한 나케

딘라가 바라본 나케 7 to ㅎ



ㄱ. 겨울 특식 '만?'

딘의 생각 : 아무리 동남아라고 하지만 12월의 라오는 아침 저녁으로 엄청 추운 날씨야.
방안에 만 있다가 추워 거리에 불을 피워 이웃 사람들과 용기종기 앉아 이야기하고 겨울 특식 불에 구운 만을 먹지!! 맛은 우리나라 고구마와 비슷해!!



ㄷ. 우리가 관찰한 나케

딘라가 바라본 나케 7 to ㅎ



○. 매일 밤마다 라오스 전통악기 '꺄'을 분다.

라의 생각 : 내 셋째 남동생이랑 앞집 남자 애들이 매일 저녁마다 앞 마당에서 꺄을 불어. 나한테도 불어보라고 해서 몇 번 불어봤는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 리코더랑 비슷해서 쉬울 줄 알았거든. 내가 여기 온 두 달 내내 저녁마다 하루도 안 빼놓고 불고 있어. 안 지겹나? 싶기도 해 ㅎ



▶ 꺄을 부는 셋째 남동생 누.

미. 학업보고



의	년	화	수	목	금	토
		12/1	2	3	4	5
나케 마을 살이						
6	7	8	9	10	11	12
(임시) 푸딩대 살이						몽축제 '나베찌'
13	14	15	16	17	18	19
나케 마을 살이						
20	21	22	23	24	25	26
나케 마을 살이				비자 트립		
27	28	29	30	31		
나케 마을 살이				마을 단합 대회 (선생님, 군인, 경찰, 마을 청년회)		

리. 활동 보고

2-1. Primary school class

✓ 라온아띠의 초등학교 수업

When? 월~ 수

What? 8:00~ 11:30 → 수업 안들어가는 선생님들 컴퓨터 수업.
30분 쉬는 시간에는 아이들과 놀기, 선생님들과 배구하기.
2:20~ 3:30 → class에 들어가 미술 수업, 게임.

5개의 반 수업을 한차례씩 끝내고, 종이 접기 수업을 시작했다.
함께 표창을 접은 후에 표창으로 미니 게임을 했다.





바로 표창 던지기 게임!
높은 점수에 표창을 던질 수록 이기는 게임이다. 던은 한 방에 이길 수 있는 1000점짜리 동그라미를 그리기도 했다.

2. 활동 보고

2-1. Primary school class

✓ 라온아띠의 초등학교 dance 수업

전교생을 모아 다함께 '빠빠빠'를 추기로 했다. 땀별에도 아이들은 열광적이었다. 그리고 쉬는 시간 신나는 노래를 틀었더니,



르. 활동 보고

르-1. Primary school class

✓ 라온아띠의 초등학교 dance 수업

순식간에 운동장이 클럽이 되었다. 춤추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니 너무 웃겼다. 라온 사람들은 아이이건 어른이건 참 흥이 많다.



★ 베스트 오브 베스트★





Primary class

Primary class는 grade1부터 grade5까지 다양한 나이대 아이들이 함께해. 아이들의 수준이 다양할 뿐 아니라, 아이들이 원하는 또 아이들에게 필요한 수업 역시 모두 달라. 그래서 수업의 방향을 찾기 힘들었어. 우리는 일단 아이들이 영어를 쓰는 것보다 말하고 듣고 영어를 재미있게 익히는 것에 중점을 두기로 했어. 대신 더 높은 수준의 수업을 원하는 class5 아이들에 한해서 다음 레벨의 수업에 참관할 수 있게 했어. 동그렇게 둘러 앉아 함께 영어 낱말 카드를 보고 말하고 함께 대화하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 중이야. 또 마무리로 항상 함께 작은 게임을 하고 있어.



Secondary&High class

Secondary&High class는 읽고 쓰는 것에 집중해 수업을 진행 중이야. 이 아이들 역시 영어 수준이 천차만별이야. Secondary school 2학년 정규교재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 특히 문법 부분은 더 그래. 우리가 설명하기가 어렵거든. 지난 한 달 동안은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어도 잘하는 아이들의 도움을 받게 하며 수업을 계속 진행해 나갔는데, 다가올 한 달은 어떻게 수업을 진행해나가는 게 좋을지 더 고민해볼 점이야.

2-3. 예비 센터 스태프와 마을지도 그리기



▶ 라오족인 쟁과 크무족인 분.



▶ 몽족인 이영. 곧 유스센터의 보스가 될 친구!

예비 센터 직원들과 마을지도를 그리기로 했어. 라오족, 크무족, 몽족이 한 명씩 모였지. 각자가 사는 마을을 그려서 마을지도를 합쳐 큰 도화지에 옮기는 작업을 할거야. 아직 마을지도를 어디에 붙일지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 해봐야 해. 완성되면 보여줄게~

2-4. 주말마다 센터에 나무 심고 물주기



▶ 몽족 전통 집 모양의 센터. 이 사진은 12월 19일.



▶ 이 사진은 12월 20일. 하루 만에 지붕과 벽이 올라갔어. 왼쪽이 라오 전통 집 모양의 센터.

나케 유스 센터는 마을 주민들이 함께 지어가는 중이야. 원래는 12월 중순에 개원 예정이었지만 농번기가 겹쳐져서 미루어졌어. 그리고 농번기가 끝난 12월 셋째 주 주말 주민들이 센터 공사를 위해 모두 모였어. 생각보다 빨리 센터가 지어져서 놀라기도 했어.

나케 유스 센터 두 채는 전통 집 모양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라오족 스타일, 하나는 몽족 스타일의 집이야.

라온아씨는 주말마다 센터 돌 울타리와 앞 마당에 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있어.

파의 나몬살이

니가가라 라오스 3탄

3탄

파 의 나 몬살이 목 차

- ㄱ 느아느아 나몬느아
- ㄴ 활동보고
- ㄷ 12월의 고민

추수가 끝난 마을 사람들의 생존법을 소개합니다!

7. 느아느아 나몬느아



농부들의 '생계유지법'을 소개합니다.



Why?

집 한켠에 쌀을 쌓아두고 팔지 않는 것이 궁금했어. 추수를 하면 바로 팔 줄 알았거든ㅎㅎ

✓ 추수가 끝났는데 쌀을 팔지 않을까?

추수가 끝난 12월에 바로 팔아버리면

‘쌀의 가격은 1kg = 1,000 kip’

하지만, 쌀이 부족한 7월까지 기다렸다가 쌀을 팔면

‘쌀의 가격은 1kg = 5,000 kip’

How?

우리가족의 직업은 농부이기 때문에 쌀을 팔지 않으면 들어오는 수입이 없어. 그렇다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까?

✓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까?

숲에 들어가 새를 잡아서 팔거나, ‘까농’이라고 하는 애벌레를 잡아서 팔거나, 그것도 아니면 1년에 한번씩 새해에 맞춰 소를 판다고 해.

7. 느아느아 나몬느아

‘행복한 하루’를 보내는 나몬느아의 놀이를 소개합니다.

1



남동생 ‘버’가 나를 부르더니 우리가 마켓에 타고 갔던 경운기를 이야기했다. 그랬었지 하고 넘겼었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1시간 뒤 자신이 만든 것이라며 경운기를 가져왔다. 제법 잘 굴러간다.

2



센터에 있는 공을 빌려 달라며, 남동생 2명과 친구들이 몰려와 하루 종일 괴롭혔다. 결국 성화에 못 이겨 센터에 가서 공을 줬더니 축구 공도 아닌 배구공에 바람을 채우고는 5시간 쯤 공을 찬다.

3



요즘엔 고무줄 놀이가 아닌 구슬치기에 재미가 들었다. 구슬치기를 할 때 사진을 찍어도 모를만큼 집중력이 대단하다. 아직 어떤 방식으로 구슬을 치는지는 알아내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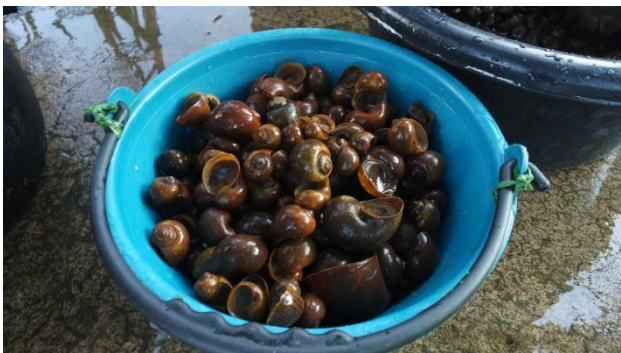
7. 느아느아 나몬느아



부록. 남동생 '버'의 쥐사냥

단백질이 부족한 나몬느아의 단백질 보충제인 '쥐'사냥 법

1



먼저 쥐가 좋아하는 고동을 잡아요.

3



손질한 고동을 덩에 끼워요.

2



고동의 껍질을 깨서 알맹이로 미끼를 만들어요.

4



쥐의 이동통로에 미끼를 설치해요. 그리고.. 기다려요.



ㄴ. 활동보고

- ㄴ-1. 센터활동
- ㄴ-2. 농장일손 돕기
- ㄴ-3. 몸새해 '낯뻐져'

Primary school CLASS

TIP

몽족은 태어나서 바로 라오스 언어를 쓰지 않고 초등학교에 가기 때문에 몽족에게는 라오스 어는 제 2의 언어라고 할 수 있어. 나몬느야는 몽족 마을이기 때문에 영어보다 중요한 언어교육이 '라오스 어'라고 생각해서 STAFF들이 라오스 어 교육을 맡기려 했지.



	월	화	수	목	금
				쓰레기 줍기	
Language	English	English	English	Laos	Movie
computer	B class		B class		

Secondary & High school CLASS

TIP

STAFF들이 컴퓨터 수업을 할 수 없어서, FA가 컴퓨터를 전담으로 맡기려 했어. 하지만 영어를 가르쳐 줄 수 없는 아쉬움에 금요일 하루 영화대신 공부를 원하는 친구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기려 했어. 영화보다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은 신기한 일이야..



	월	화	수	목	금
Language	English	English	English	English	English (Fa)
computer	C class	D class	C class	D class	Movie

ㄴ-2. 농장일손돕기

추수가 끝난 논이 밭이 되다?

마을 사람들이 공동작업하는 울타리부터, 오이 심기까지

우리가족은 주말엔 농장에 가는데 추수가 끝난 가족들은 무엇을 할까? 궁금했어.

그런데 또 주말에 농장에 간다지 뭐야? 그래서 따라가봤더니 논을 밭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더라고!!

먼저 동물이 많은 라오스답게 동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는 작업을 했는데, 나는 각자 가족의 밭의 모양대로 다른 울타리를 만드는 줄 알았어. 그런데 알고보니 각자의 논의 울타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커다랗게 공동으로 울타리를 만드는 작업이었어...

또 내가 그만 한국의 눈을 가지고 라오스를 바라본 거지ㅎㅎ 오이, 수박, 고구마, 따오 등등 많은 종류를 심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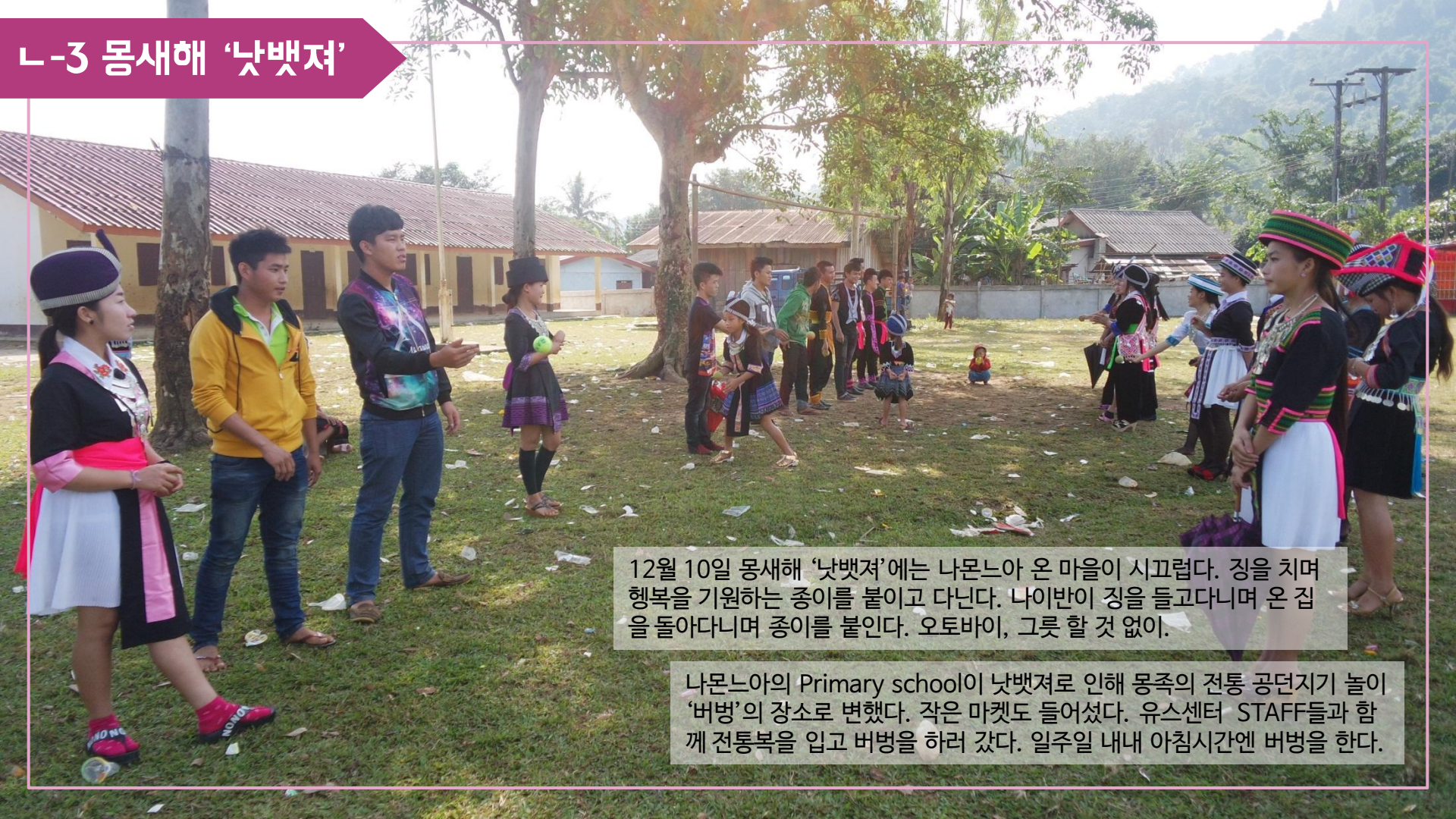


ㄴ-2. 농장일손돕기



큰 딸 씨가 갑자기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당에 포대를 깔고 쌀을 붓고는 선풍기를 가지고 와서 말리기 시작했다. ‘꺼 우와 다치?’라고 물으니 내년엔 심을 씨앗을 말리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ㄴ-3 몽새해 '냇뻬져'



12월 10일 몽새해 '냇뻬져'에는 나몬느아 온 마을이 시끄럽다. 징을 치며 행복을 기원하는 종이를 붙이고 다닌다. 나이반이 징을 들고다니며 온 집을 돌아다니며 종이를 붙인다. 오토바이, 그릇 할 것 없이.

나몬느아의 Primary school이 냇뻬져로 인해 몽족의 전통 공던지기 놀이 '버빙'의 장소로 변했다. 작은 마켓도 들어섰다. 유스센터 STAFF들과 함께 전통복을 입고 버빙을 하러 갔다. 일주일 내내 아침시간엔 버빙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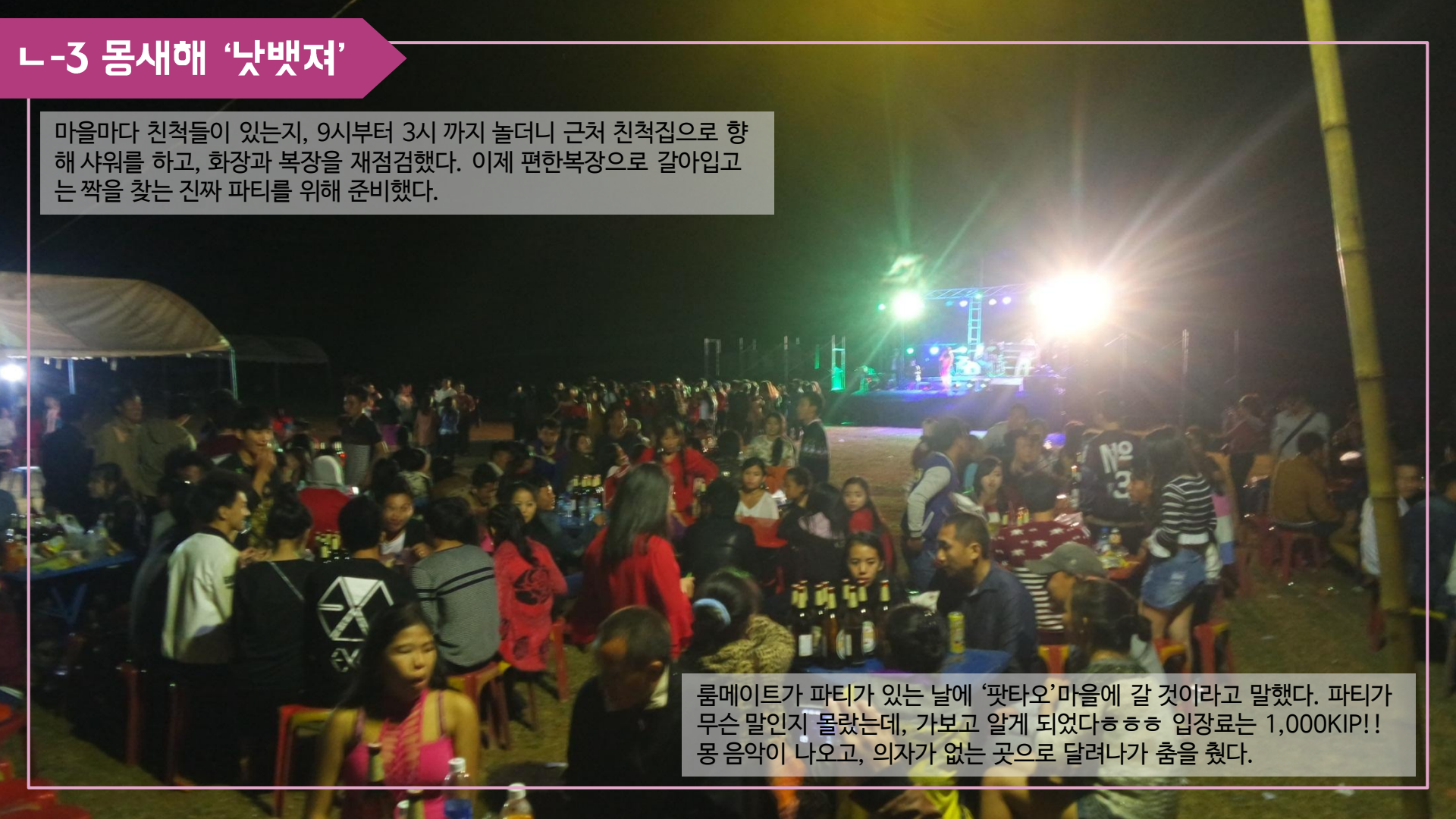
L-3 몽새해 '낯뻐져'



라운아띠 4명과 함께 가는 것과 현지인 친구와 함께 낯뻐져를 즐기는 것은 달랐다. 룸메이트인 마니가 아침 6시부터 바쁘게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화장하는 모습을 처음 봤다. 속눈썹을 붙이고, 아이라인에 하이힐까지

L-3 몽새해 '낯뻐져'

마을마다 친척들이 있는지, 9시부터 3시 까지 놀더니 근처 친척집으로 향해 샤워를 하고, 화장과 복장을 재점검했다. 이제 편한복장으로 갈아입고 는 짝을 찾는 진짜 파티를 위해 준비했다.



룸메이트가 파티가 있는 날에 '팟타오' 마을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파티가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가보고 알게 되었다ㅎㅎㅎ 입장료는 1,000KIP!! 몽 음악이 나오고, 의자가 없는 곳으로 달려나가 춤을 쳤다.



㉔. 12월의 고민

- ㉔-1. 나몬느아 STAFF 고민
- ㉔-2. FAA의 고민

㉔. 12월의 고민

㉔-1. 나몬느아 STAFF의 고민



✓ 나몬느아 STAFF

- 쿠왕(20) : 리더 & High school 영어수업
- 실로(20) : 회계 & Primary school 영어수업
- 마니(20) : 센터 키 관리 & Primary school 영어수업
- 파(23) : 라온아띠 & 컴퓨터수업

✓ 우리의 고민은?

① 나몬느아 유스센터의 새로운 스템의 충원

why? 12명의 STAFF이 있었지만, 현재 3명이라 힘들다. 센터의 지속가능성이 걱정된다.

How? STAFF 가능성있는 친구를 찾아보자

② 쓰레기 문제

why? 마을 전체적으로 버려진 쓰레기가 너무 많다.

How? 마침 한국 유네스코위원회와 함께 쓰레기 줍기를 진행하기로 했다. 매주 목요일 Primary school과 함께 쓰레기 줍기

③ 라오스어의 필요성

why? 학교에서 라오스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발음 기호를 가르치지 않는다.

How? 센터에서 영어수업을 줄이고, 라오스어 수업을 진행해보자.

㉔. 12월의 고민



㉔-2. FAA의 고민

✓ 라온아띠 FAA의 고민

Why? 농장일과 장례식 등의 일로 STAFF들이 센터에 나오지 않았다. 처음엔 혼자서 수업을 하려고 센터에 나왔지만, STAFF들이 없는 센터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나혼자 수업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STAFF들에게 센터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싶었다. 생계를 유지하는 농장일도 중요하지만 마을의 인재를 양성하고, 마을 위해 고민하는 센터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How? STAFF들에게 이런 고민을 이야기했더니 괜찮다는 말을 했다. 몽족에게 새해는 1년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새해가 끝나면 센터일을 함께 하자고 했다. 나도 매일 매일 무엇인가 하려고 애를 쓰기 보다는 흐르는데로 가족들과 새해를 즐기며,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나몬노아 유스 센터의 라온아띠 활동의 큰 목표는 새로운 STAFF을 찾아보려 한다.

ㄷ. 12월의 고민



ㄷ-2. FAA의 고민

✓ 놀이터 디자이너 FAA의 고민

why? 놀이터란, 자연에서 놀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책에서 배웠던 놀이를 통한 상상놀이, 협동놀이 등을 우리나라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플라스틱 장난감이 아닌 자연에 있는 나무, 돌, 물 등으로 시간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노는 라오스의 아이들을 보며 놀이는 충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놀이터가 필요없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라오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라온 야디로 활동하는 영어와 컴퓨터 수업일까? 아직은 아이들에게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 모르겠다. 남은 1개월동안 이것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운의 푼송살이

니가가라 라오스 4탄

4탄

의 푼송살이 차

- ㄱ 푼송을 소개합니다
- ㄴ 활동보고

7. 풍수를 소개합니다

- 7-1. 풍수유스센터?
- 7-2. 운이 관찰한 풍수



7. 폰송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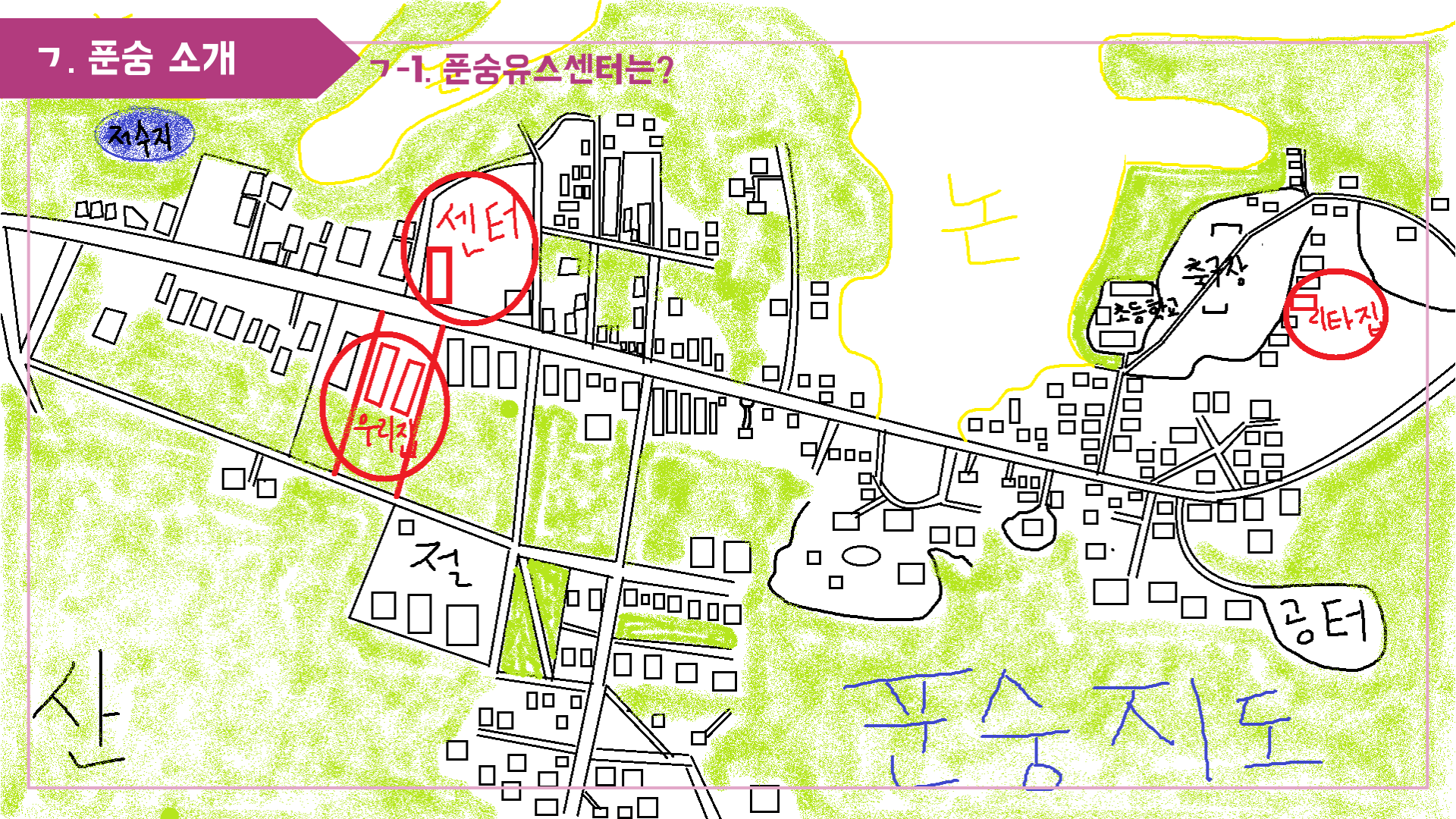
7-1. 폰송유스센터?

폰송마을 안쪽 주도로 바로 옆에 위치한 유스센터

- 2013년 4월 센터 오픈
- 2013년 4월 충남대 학생들 자원봉사
- 2013년 전남대 학생들 자원봉사
- 2014년 전남대 학생들 자원봉사
- 2015년 12월 전남대 학생들 자원봉사

7. 품송 소개

7-1. 품송유스센터는?



7. 풍습 소개

7-2. 운이 관찰한 풍습

운이 바라본 풍습 7 to B



7. 아이들이 고무줄을 연결해서 고무놀이를 해

‘운’의 생각 : 한국에서 어린 시절 검은 색 긴 고무줄로 고무줄놀이를 많이 하는데 여기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고무줄 놀이를 즐겨해. 그런데 여긴 한국 처럼 그런 긴 고무줄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작고 동그략고 노란 고무줄을 하나하나 연결해서 길게 만들어서 고무줄 놀이를 해.



운이 바라본 폰숭 7 to 8



ㄴ. 겨울이 되면 패딩이 필요할 정도로 추워

‘운’의 생각 : 라오스는 국토가 남북으로 길쭉해서 수도인 비엔티안 위쪽으로는 겨울기간에 온도가 10도 까지 떨어지기도 해. 이 기간에 여행이나 자원활동을 하러 오는 사람들은 두꺼운 긴팔 옷이 필수야.



7. 폰숭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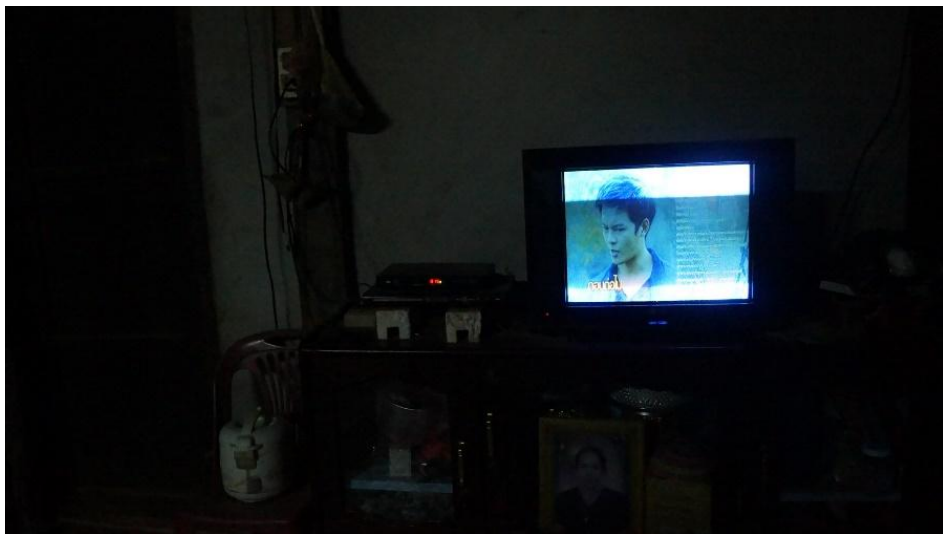
7-2. 운이 관찰한 폰숭

운이 바라본 폰숭 7 to 8



ㄷ. 라오스 사람들은 태국TV프로그램을 본다.

‘운’의 생각 : 라오스랑 태국은 언어가 90%가 같기 때문에 라오스 사람들이 태국어를 알아 듣는데 아무 문제가 없네. 무엇보다 라오스는 자체 TV프로그램이 거의 없어서 어린 시절부터 태국 TV프로그램을 보면서 자라기 때문에 전부 이해하면서 볼 수 있다고 해.



운이 바라본 훈송 7 to 8



8. 라훈송에서는 자기 집을 직접 지어

‘운’의 생각 : 라오스 사람들은 추수기간이 지나고 나면 집안 일들을 시작하는데 대표적인 일이 바로 집 짓기야. 기존에 있던 집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거나 뒤편으로 공간을 더 만들기도 하고, 본채 옆에 별채를 짓기도 해.



7. 풍송 소개

7-2. 운이 관찰한 풍송

운이 바라본 풍송 7 to 8



□. 풍송은 오후가 되면 하늘에 회색연기가 가득해

‘운’의 생각 : 요즘 풍송에서는 추수철이 끝나고 자기 뒷마당에 있는 나무들을 정리해서 태워서 태워서 오후만 되면 하늘에 회색 연기가 가득 차올라.



나. 활동보고

나-1 활동 내용



ㄴ. 활동 보고

ㄴ-1. 활동내용

푼송에서의 **문의 활동**

영어 클래스

이번 달부터 오후 5시부터 6시 까지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영어 클래스를 열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 학생들이 많이 올 때는 30명 정도 와서 교실이 터져 나갈 정도인데 안오는 날은 그 절반인 15명 정도로 널널해. 처음에는 떠들지도 않고 수업에 열심히 었는데 지금은 애들이 친해져서 그런지 수업시간에 장난을 많이 쳐.



ㄴ. 활동 보고

ㄴ-1. 활동내용

푼송에서의 **문의 활동**



전남대 봉사단

전남대에서는 2013년 부터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두 번 푼송으로 대학생 봉사단을 파견하고 있어, 22일에 도착해서 3주 동안 자원활동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야. 센터에서 컴퓨터 클래스와 영어클래스를 열어서 푼송 학생들을 가르치고, 마을 사람들이 강당으로 이용하기 위한 새 건물을 짓는 활동을 해. 나는 푼송 스태프들과 함께 그들이 원활하게 자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

5탄 개인에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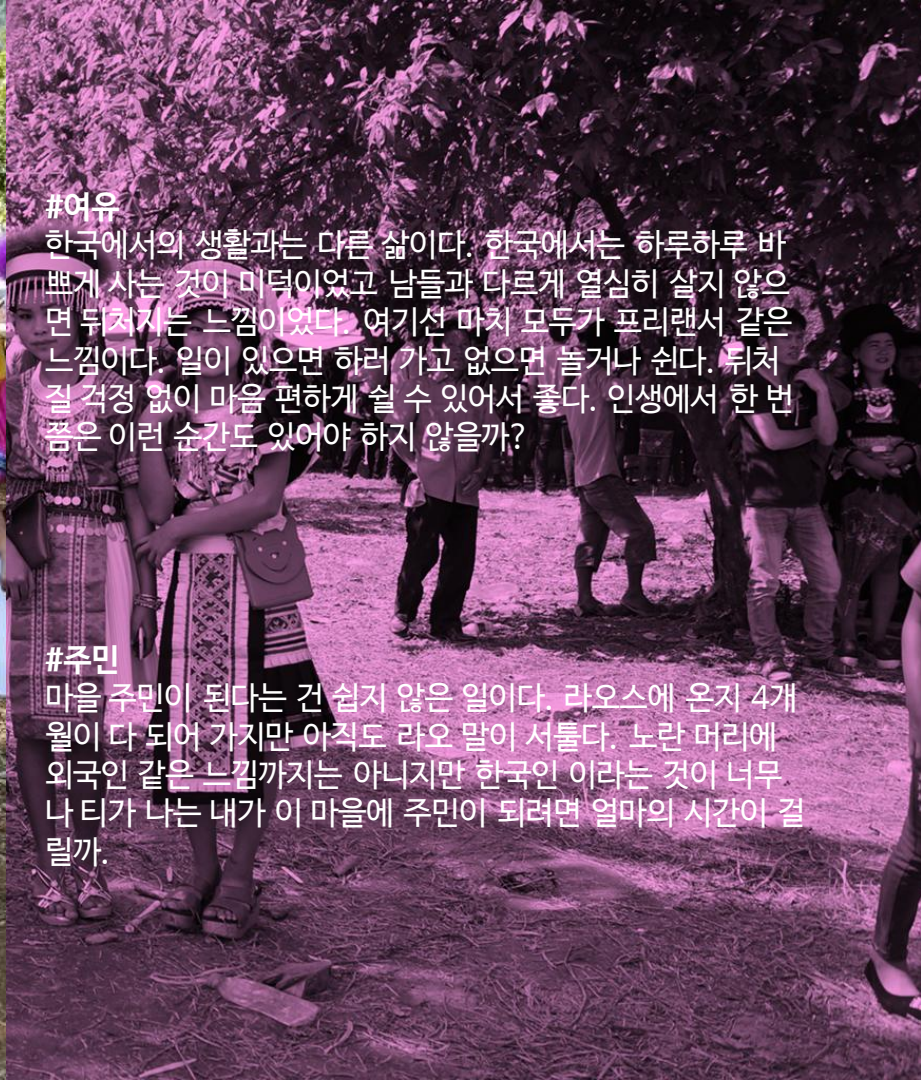


DIN의 12월 에세이

12월이 지나 간다. 나에게서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았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해 계속 달려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을 조금 더 즐기려 한다. 달리다가 힘들면 조금 쉬어도 되는 이곳에는 쉼터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성공하고 싶었다. 성공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지금의 나는 무엇이 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버렸다. '囊中之錐' 같은 삶을 살아가 겠노라 다짐한다. 결국 주머니 속에 송곳은 빠져 나올테니.





#여유

한국에서의 생활과는 다른 삶이다. 한국에서는 하루하루 바쁘게 사는 것이 미덕이었고 남들과 다르게 열심히 살지 않으면 두치지는 느낌이였다. 여기서 마치 모두가 프리랜서 같은 느낌이다. 일이 있으면 하러 가고 없으면 놀거나 쉰다. 뒤처질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쉴 수 있어서 좋다. 인생에서 한번쯤은 이런 순간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주민

마을 주민이 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라오스에 온지 4개월이 다 되어 가지만 아직도 라오 말도 서툴다. 노란 머리에 외국인 같은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한국인 이라는 것이 너무 나티가 나는 내가 이 마을에 주민이 되려면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

WOON의 '30일'간 이야기

#이해

타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렵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 타인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 똑같은 단어, 똑같은 문장도 다른 의미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것을 받아들이는 것 또한 각자의 관점과 사고과정을 거쳐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것을 보면 놀라울 때가 많다. 이렇듯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서로를 끝까지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더붙어 살아간다는 의미를 조금씩 배우면서 깨닫는 요즘이다.

#변화

세상에 변화지 않는 것은 없다. 라오스에서의 4개월 동안 내 마음도 처음과는 다르게 변해간다. 처음의 과한 의욕이 극심한 정체를 불러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지금은 '조금' 느긋해졌다. 조금해할 필요도 없고 서두를 필요도 없다. 여기서의 삶을 조금씩 즐기게 되었다.



FA의 '나몬느아' 이야기

“

나몬느아의 일원에 되어 일상이 즐기던 12월이 지나갔다. 이번 달은 팀원 4명과 떨어져 온전히 혼자 생활했다. 4명이 함께 있을 때 함께 고민하고 나눴던 것들도 지금은 혼자 고민한다. 혼자 지내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투닥되고, 함께 이야기하던 팀원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혼자 있으며 마을 사람과 더 소통하며, 나몬느아의 일상에 잘 스며들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나몬느아의 일상에서 나는 작은 것에 행복하자는 말을 보고 느낄 수 있었다. 축구공 하나를 던져주니 하루에 5시간씩도 공을 차는 남동생들을 보며, 그리고 축구를 하면 진짜 행복해하는 얼굴을 바라보며, 나까지 행복해지는 것을 느꼈다. 내겐 재미없는 축구도 헤헤거리며 웃는 동생들 덕분에 어느샌가 나도 축구장에서 축구하는 것을 바라보며 함께 웃고 있다. 라오스는 어린아이 같던 나를 더 어린아이로 만들어 주는 곳인 것 같다. 이제 진짜 한달 남았다. 남은 한달, 내가 또 이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떤 것이 나몬느아 마을에도 움이 될 지 나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하루하루를 남동생들처럼 행복하게 살아가다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곳의 별 것 아닌 것 같은 이 일상이, 이 불편함이 한국에 돌아간 내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기대된다.

’고 더 나몬느아’

”

LAA의 12월

좋은 성적을 위해 좋은 스펙을 위해 더 나은 나를 위해 항상 달려왔다. 어쩌면 라온아띠도 나에게 그 연장선 중 하나였을 수 있다. 그 의미를 버리는 데 두 달이 갔다. 나몬느아에서의 나는 참 별로일 수도 있었겠다. 그렇게 나케에 왔고 특히 12월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과 이 곳의 일상에 나를 맡겼다. 조금씩 내가 바라던 나의 모습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이전의 나보다 지금의 내가 더 편하고 사랑스럽다.



남은 한달도 화이팅!

내년에 봐요

니가와봐라 라오스...

